

20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일제의 조선민족 말살책동은 반인륜적인 극악한 범죄

김 은 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정치적폭압과 경제적락탈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못된짓을 많이 하였습니다.》(《김일성전집》 제90권 310페이지)

일제는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세계 식민지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악독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 정책에 따라 조선민족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민족의 완전한 멸살을 노린 반인륜적범죄의 극치였다.

이 글에서는 일제가 20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이 력사에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였다는것을 밝히려고 한다.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이 반인륜적인 극악한 범죄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조선민족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한 대량적인 학살만행으로 일관되었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은 비단 식민지통치시기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감행된 일시적인것이 아니였으며 이미 중세기부터 추구되어온 뿌리깊은것이였다.

1592년 4월 불의에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침략군 수하병졸들에게 《해마다 군대를 출동시켜 조선사람을 몽땅 죽여버려 조선을 빈땅으로 만든 다음 서로(간사이지방)의 사람들을 옮겨 조선에 살게 하고 동로(간토지방)의 사람들을 서로에 옮겨 살게 하면 10년후에는 반드시 성공이 있을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만적인 조선인학살에 내몰았다.*

* 《간양록》 참고

그리하여 임진조국전쟁시기에만도 무려 100여만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이 일본사무라이들의 야수적인 만행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였다.

근대시기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은 중세기부터 골수에 배긴 이러한 사무라이적기질에 그 바탕을 두고있었다.

1868년 명치유신으로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정한론》을 부르짖으며 조선침략을 《국책》으로 내세우고 우리 나라에 대한 독점적지배권확립을 위한 책동을 본격화하였으며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강압날조하고 우리 나라의 령토까지 완전히 병탄한 일제는 《조선통치의 근본방침은 내선의 일체화이며 궁극의 목표는 조선의 시고꾸, 규슈화》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력사적조사》 조선편 (일문) 2분책 3페이지

일제가 떠들어댄 《내선의 일체화》란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하는것을 전제로 한것이며 《조선의 시고꾸, 규슈화》란 삼천리강토를 일본령토의 한 부분으로 완전히 합병한다는것이였다.

이런 강도적론리에 따라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 마사다께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폭언하면서 무단통치기간에만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검거, 투옥하고 야만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는 1910년 11월 황해도, 함경남도, 경상도일대의 반일의병들에 대한 《토벌》을 감행하여 수많은 애국적인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같은해 12월에는 데라우찌암살미수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여 600여명에 달하는 애국적지식인들과 인민들을 검거투옥하였다.

일제가 《범죄즉결령》, 《강제집행권》을 휘두르면서 애국적인민들을 검거한 수는 해마다 늘어나 1912년에 5만 2 000여명, 1918년에는 14만 2 000여명에 달하였다.*

* 《조선인강제련행의 기록》(일문) 미라이사 1965년 268페이지

1919년 3.1인민봉기가 폭발하였을 때에도 일제는 라남19사단과 통산20사단의 일제 침략군 무력과 헌병, 경찰 등을 총동원하고 본토에서 새로 6개 대대와 보조헌병 400명의 병력을 더 끌어들이었으며 일본거류민들에게까지 각종 흉기를 들려주어 평화적시위군중 탄압에 내몰아 수많은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당시 일제는 경기도 수원군 제암리에서만도 300여명의 사람들을 강제로 교회당에 감금한 다음 건물에 불을 지르고 맹사격을 가하여 그들모두를 무참히 살해하였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3월초부터 5월말까지의 석달동안에만도 7 500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1919년의 3.1인민봉기기간에만도 일제는 1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에서 발행된 《일본통치하의 조선》이라는 책에서는 이 시기 헌병주재소는 조선전역에 98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수속절차도 없이 조선사람들을 살해하였으며 그밖에 877개의 헌병파출소, 43개의 헌병통감소(후에 파출소로 개칭)들에서도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에 대하여 폭압을 가하여 적어도 10만명의 조선사람들이 쓰러졌다고 하였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제의 학살만행은 국내뿐아니라 해외에서도 공공연히 감행되였다.

3대 총독으로 기여든 사이토 마코도가 《조선통치방침》의 한 조항에서 해외조선인들을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단속을 하고 그 소굴을 소탕할 필요가 있으며...》*고 चे치면서 하달한 명령에 따라 1920년 10월 훈춘사건을 조작한 일제는 조선강점군, 씨비리출정군 등 살인집단을 동원하여 무려 3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하였다.

* 《조선통치비사》(일문) 제국지방행정학회 1919년 160페이지

일제는 1923년 9월 간포대지진때에는 자연재해를 기화로 하여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인 살인방법으로 무려 2만 3 000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학살하였다.

세칭 《오끼나와의 비극》으로 알려진 오끼나와에서의 일제침략군의 대학살만행 역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을 고발하는 또 하나의 실례이다. 일제는 오끼나와에서의 패배가 눈앞

의 현실로 닥쳐오자 오끼나와의 주민들에게 자결을 강요하여 서로 수류탄을 터뜨려 죽게 하였으며 이 섬에 강제연행된 2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학살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을뿐아니라 잡아먹는 식인종적인 만행도 서슴없이 저질렀으며 중국 동북지방의 할빈에 있던 731부대에서 조선사람들을 세균무기 실험대상으로 삼아 무참히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조선인학살만행은 그 어떤 우발적인 사건을 계기로 벌어진것이 아니라 식민지통치 전기간 국가《정책》으로 감행된 조선민족말살책동의 극치였으며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로 인하여 식민지통치기간에 100여만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이 반인륜적인 극악한 범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온갖 방법을 총동원하여 조선민족의 인구증식을 백방으로 방해하였기때문이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조선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강제징용, 징병과 일본군성노예 제도였다.

일제는 1930년대 중엽이후부터 조선인강제징발을 통하여 저들의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자원을 해결하는 동시에 조선에서의 인구증식을 억제함으로써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범죄행위를 강행적으로 추진하였다.

일제는 1938년 4월에 발표한 《국가총동원법》에 기초하여 《국민징용령》(1939. 9.), 《조선직업소개령》(1940. 1.),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 11.), 《개정국민징용령》(1943. 9.),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1944. 8.)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의무적인 강제징발과 인간이하의 노예로동을 법제화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의 강제징발을 정책화하고 법제화하였을뿐아니라 그 집행도 국가통치기구를 발동하여 강제적으로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한 식민지통치기구들을 강제징발집행의 제1선에 내세웠으며 여기에 헌병, 경찰 등 파쑈적폭력까지 개입시켰다.

일제의 강제연행에 대하여 당시 조선사람《사냥》에 동원되었던 가마다라는 한 일본인은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었다. 전쟁이 점차 가렬해짐에 따라 ...로무징용자의 할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었다. 납득시켜서 응모하려고 해서는 도무지 그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들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자동차를 들이대고 꺼리낌없이 잡아갔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한다고 하면서 란폭한짓들을 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 《조선신화》(일문) 창원사 1952년

1940년에 진행된 《국세조사》에 의한 조선의 인구수는 2 354만명이었는데 1941년 10월에 공포된 16-40살까지 나이의 남자는 421만명이였다.

일제는 이 나이의 청장년들을 대부분 전쟁마당이나 군수공장, 탄광, 광산 등에 강제징발하였으며 그로 하여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마을에 젊은 남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이것은 조선민족성원의 증식을 억제시켜 조선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책동이 얼마나 악랄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일제의 이러한 야만적인 강제징발에 의해 1938—1945년기간에만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이 전쟁마당과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혹심한 고역에 시달렸고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민족말살책동의 한 고리로 감행된 일제의 야만적인 반인륜적범죄행위가운데서 가장 악랄한것은 일본군성노예제도였다.

세계식민지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인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조선민족말살을 위하여 일본정부와 군부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행한 특대형반인륜적범죄로서 그 시작과 지속시기, 련행수법과 성적학대의 참혹성에서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가혹한 제도였다.

조선강점초기부터 조선민족말살을 식민지 지배정책의 기본으로 내세운 일제는 비렬하게도 일본군성노예제도를 조선민족을 밑뿌리채 들어낼수 있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고 그를 강행적으로 실시하였다.

일본군성노예제도는 조선여성들뿐아니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과거 일제의 침략을 당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들에게도 강요되었다. 그러나 그 압도적다수를 차지한것은 조선여성들이였으며 그들은 체계화된 보급 및 관리체계에 따라 《전시물자》로서 일제의 침략전쟁기간 공급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인여성 스즈끼 유코는 《...〈위안부〉를 시키면 여성의 〈생식능력〉이 쇠퇴해진다는것을 빈틈없이 계산에 넣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 계산에 기초하여 고안해낸것이 식민지에서 처녀들을 끌어오자는것이였다. 그렇게 하면 당면하게 성병을 방지할수 있을뿐아니라 식민지민중에게서 민족성을 앗아내기도 매우 좋다는 음모적타산도 작용했을것이다. 바로 여기에 민족적차별이 있고 식민지 지배의 본질이 있었다.》*고 하면서 일제가 성노예제도를 통하여 노린 흉악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폭로하였다.

* 《세카이》(일문) 이와나미서점 1992년 9월호

20만명의 조선여성들에게 강요된 야만적인 성노예만행은 단순히 조선여성들의 절개와 정조만을 유린한 범죄행위인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완전한 말살을 노린 특대형범죄였다.

20세기 전반기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감행한 조선민족말살책동이 반인륜적인 극악한 범죄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우리 인민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고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시켜 조선인민을 《황민화》하려고 하였기때문이다.

민족의식은 자기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려는 사상의식으로서 민족의식을 떠나서 민족의 존재자체를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번영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이러한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하여 《동조동근》과 《내선일체》를 부르짖으며 민족동화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찬란한 력사와 문화전통을 외국말살하고 지어 우리의 말과 글까지 빼앗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는것은 ... 조선통치방침의 항구적실천에 있다.》*고 하면서 《궁성요배》와 《신사참배》,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으며 《황국신민서사》를 의우고 일본어를 《국어》로 내리먹이면서 조선사람들을 저들에게 충실한 《황국신민》으로

만들려고 책동하였다.

* 《시정30년사》(일문) 조선총독부 1940년 826페이지

일제는 《황민화》정책의 일환으로서 1939년 11월 10일 《개정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조선사람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다.

당시 《황민화》를 위한 일제의 책동에서 제일 큰 장애로 된것은 조선인민의 반일투쟁과 함께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강한 민족성이었다. 우리 인민이 민족적공지로 간직하고 있던 력사와 문화, 언어와 풍속 지어는 옷차림과 식생활까지 포함한 조선적인 모든것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도전하는것이였으며 따라서 일제는 조선적인 모든것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민족성말살책동에 미쳐날뛰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바로 《창씨개명》책동이였다. 일제가 강요한 《창씨개명》의 내용은 한마디로 모든 조선사람들이 새로 일본식의 《씨》를 가지며 그에 따라 이름을 바꾼다는것이였다.

당시 일제는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인은 황국신민화될수 있는 소질》을 지니고있으며 《원래부터 야마또민족과 조선민족은 동조동근의 혈연적필연성으로 굳게 맺어져있다.》*는 식으로 《창씨개명》의 그 무슨 《근거》라는것을 내들었다.

*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에 대한 제75회 의회답안》 소화 14년 제령 20호

이러한 《근거》로부터 일제는 옛날 《내지(일본)로 건너가 일본식의 〈씨〉를 사용한 대다수의 조선사람들은 완전히 야마또민족과 융합되어 오늘날에는 반도인의 후예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국신민화〉되였다.》고 하면서 따라서 지금의 《전체 반도인이 가까운 장래에 야마또민족과 혼연일체를 이룰 날이 올것》이라고 떠벌였다.*

* 《조선강연》 100호 《반도인의 씨제도의 제정에 즈음하여》 1939. 11. 20.

일제는 《조선총독부》 및 아래의 각급 권력기관들과 헌병, 경찰 등 군사폭압력량을 총동원하는것과 함께 파렴치한 사회적제재항목까지 설정하고 실행하는 방법으로 《창씨개명》을 악랄하게 추진시켰다.

당시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강요한 일부 제재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로의 입학, 진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창씨》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교원은 리유없이 질책, 구타할수 있으며 그들을 통해 부모의 《창씨》를 추동하도록 한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총독부》 및 각급 관계기관에 채용될수 없으며 현직자는 파면시킨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기관들에서 일체 사무를 취급하지 않는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국민》, 《불온선인》으로 단정하고 경찰기관에 등록하며 항시적으로 조사, 미행을 하는것과 함께 우선적으로 로무징용대상으로 하며 식량 기타 물자의 배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창씨》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이 붙은 화물은 철도국이나 운송점에서 일체 취급하지 않는다.((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일문) 청목서점 1977년 62~63페이지, 《충동원》(일문) 1940년 2월호)

이러한 제재항목에 따라 일제는 《창씨개명》에 응하지 않는 조선사람들을 《비국민》으로 몰아 징용과 징병, 성노예 등의 1차대상으로 련행해가는가 하면 지어는 출생신고를 비롯한 호적등록마저 해주지 않아 생활상 큰 고통을 들씩었다.

일제는 조선의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서도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일어상용을 강요하였으며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것을 《황민화》의 중요한 《징표》로 내세우고 폭력적방법으로 내밀려고 책동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부터 일본어의 《상용》을 로골적으로 강요하면서 모든 부문에 강압적으로 보급시키었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에 전반적으로 일본말을 보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1937년 3월에는 각 도지사들에게 그것을 실시하도록 지시를 주고 식민지통치기구들을 통하여 통제하였다.*

* 《시정30년사》(일문) 1940년 824페이지

일제는 1938년부터 소학교와 간이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강습회》를 조작하고 주민들을 그에 강제로 망라시키었으며 재정적투자까지 하였다.

일제는 1942년 5월 파쇼단체인 《국민총력조선련맹》으로 하여금 일본어사용을 《국민총력운동》과 《황민화》책동의 한 부분으로 《결정》하게 하고 《내선일체는 국어상용으로부터》, 《교실국어로부터 생활국어에로》라는 구호를 내걸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조선말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말만을 쓰도록 하였다.

이 시기 일제는 신문,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들과 문학예술작품까지도 《국어상용》의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일제는 방송에 《라디오국어》시간을 정해놓고 《국어보급운동》을 진행하는것과 함께 제2라디오방송에서 일본말방송비율을 대폭 늘이였다. 또한 1939년 10월 친일매문가들로 《조선문인협회》를 조작하고 1942년에는 《조선문인보국회》로 개칭하였으며 친일작가들에게 《국어(일어)작품》을 쓸것을 강요하고 일본어로 된 기관지 《국민문학》까지 발간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일본어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어 가정안에서까지 일본말을 쓰도록 강요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의 가정에서 일본말을 상용시키기 위하여 《애국반》을 통하여 《국어가정운동》을 조작해내고 그를 철저히 감시통제하였다.

이 시기 일제가 《국어상용》을 얼마나 악랄하게 강요하였는가 하는것은 로인, 부녀자, 어린이들까지 일본말을 하지 않고는 차표 한장, 물건 한가지도 제대로 사지 못하게 한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가 《국어교육》, 《국어보급》, 《국어상용》의 간판밑에 벌린 조선어말살책동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민족성을 없애고 조선인민을 《황민화》하려는것이였다.

령토와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남는것이란 언어와 정신밖에 없다.

민족어를 잃은 민족은 한 민족이기를 그만두어야 한다. 그것은 민족의 징표가운데서 피줄의 공통성과 함께 언어의 공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기때문이며 민족어는 민족

의 정신이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빼앗고 말살하는것은 민족의 전체 성원들에게서 허를 잘라내고 열을 빼앗는것과 같은 잔악무도한 범죄로 된다. 언어를 빼앗는것은 몇몇 사람들의 불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온 겨레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조선민족을 한줄에 세워놓고 그들모두를 한칼로 쳐없애는것과 같은 대살륙이나 다름없는 야만적인 범죄행위였다.

이처럼 일제는 중일전쟁도발 이후에만도 840만여명의 조선청년들을 《징용》, 《징병》으로 끌어가 생죽음을 당하게 하였고 100여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감으로써 우리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일제가 전체 조선인구의 반수에 가까운 근 1 000만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 밀어넣고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학살한 사실은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추구한 목적이 철저히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전무후무한 반인륜적범죄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력사적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전범국, 전패국으로서의 과거죄악을 성근히 사죄하고 배상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면서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있으며 《...일본의 통치는 조선에 유익하며 은혜를 준 면도 있다.》, 《한일합병》은 《조선인스스로의 뜻에 따른것》이며 《조선에 있어서 일본의 식민주의는 인간적이었다.》는 식의 망언을 마구 췌쳐대고있다.*

* 《조선분할》(일문) 아이찌대학 국제문제연구소 1992년 12~13페이지,
《아사히신보》(일문) 2003년 10월 28일

오늘 일본에서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더이상 없다.》고 떠들어대면서 조선민족말살을 추구한 식민지통치의 역사를 전면부정하는가 하면 《야스구니진자》참배의 공식화, 정례화와 같은 군국주의광풍이 열기를 띠고 몰아치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날 식민지약소국의 처지를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우리 나라는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우리는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악을 절대로 잊지 말고 투철한 혁명의식, 반제계급의식을 지녀야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창씨개명, 민족성말살책동